문화일보 창간 20주년 축하메시지

사회의 목탁으로 묵묵히 정론의 길을 가길...

문화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석간신문인 문화일보는 사회의 밝음과 어둠, 민중의 애환을 함께 담아왔습니다. 그런 문화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았다고 하니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신문은 사회의 목탁木鐸입니다. 불교의 의식에서 목탁을 치는 것은 그 소리로 만생명의 지혜가 함께 깨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일보 역시 국민에게 밝은 지혜와 다양한 정보를 열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세상은 서로 연결된 그물코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쇠로 만든 소는 사자의 포효獅子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문화일보가 언제나처럼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림 없이 정론의 길, 직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길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